



천사의 자전거



봄날은 온다

순천시 마을미술프로젝트로 확 바뀐 도심

행했던 마을이 예술 옷 입고 환해졌네

여순사건 아픈 역사 매곡동 매산등 이색 조형물·아름다운 벽화로 단장 삶의 온기·문화적 감수성 버무려져 관광개발길 이어지며 새 불거리

순천시 매곡동 매산등은 지난 1948년 10월 22일 진압군에 의해 총살 당한 마을 주민 27구의 시신이 묻혀 있던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당시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수습한 목사는 페니실린병에 이들의 이름을 담아 묻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일대에 세워진 '이슬, 흥매로 피어나다'는 작품은 슬픔이 배어있는 매산등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조형물이다. 순천대 철학과 학생들이 쓴 여순사건의 아픔을 99개의 글로 써 페니실린 병으로 형상화된 조형물에 담아냈다. 매산등은 또 근대 선교사들이 순천지역에 교육, 의료, 선교를 통해 서구의 문화를 전달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순천지역 최초 근대병원원이었던 안력산 치유병동 옆 옹벽에 설치된 '천사(1004) 희망을 담다(치유)'는 매산중학교 학생들과 매산여고 학생들이 참여해 만들어낸 작품으로 선교사들이 뿌려 내린 사랑의 의미를 살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치유를 소통과 공감에서 찾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별다른 특색 없는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다. 행한 공간에 이색 조형물이 들어서고 칙칙한 담에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졌다. 버려진 공간이 테마와 이야기를 담은 벽화, 조형물들로 채워진 뒤 차를 타고 지나던 이들이 내려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꽤 볼만한 마을로 탈바꿈했다.



소통의 문



이슬, 흥매로 피어나다



천사 희망을 담다

순천시가 추진중인 '마을미술프로젝트' 얘기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예술로 표현하는 사업으로, 순천시는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2년째 진행 중이다.

올해 주제는 '공모 3. 기쁨두배프로젝트 - 매산 등 천사의 약속'으로, 지난 12일 매산여고 음악당 옆 주차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통해 6개의 공공미술작품을 선보였다.

'천사의 가방(치유)', '천사(1004) 희망을 담다(치유)', '봄날은 온다(2)', '이슬, 흥매로 피어나다', '이상으로 가는 문', '2017. 소통의 문 등 각각의 작품에는 동네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민들의 삶의 온기, 문화적 감수성이 버무려졌다.

작품 곳곳에는 여순사건의 아픔과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선교사들의 사랑과 치유를 통한 소통, 고통을 나누며 공감하는 문화와 주민들의 배려가 담겼다.

대학생들이 여순사건 아픔을 글로 표현했고 매산중 학생들도 소통과 공감에서 치유를 찾겠다며 작품 제작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마을미술프로젝트로 설치된 6개의 작품 '천사의 가방', '천사의 자전거', '천사의 희망을 담다', '우영 마을 돌방', '우영마을 봄날은 온다', '효자손' 까지 합하면 모두 12개가 매곡동 매산등 일대에 들어섰다.

갓가지 작품들로 채워진 매산등 일대를 둘러보겠다는 여행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연계, 인근 공마당길, 문화의 거리, 창작예술촌 등에 대한 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이·통장들 "인구 빼가기 우리가 막는다"

주소만 타지역 읍진 주민 전입 유도 앞장서기로

순천지역 이·통장들이 '인구를 지키는' 첨병 역할을 맡기로 했다. 순천시 이·통장 연합회는 최근 순천시청에서 '순천시 인구지킴이와 숨은 인구 찾기' 범시민 다짐대회를 열고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주소만 타 지역으로 옮겨놓은 주민들의 전입을 유도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순천시가 최근 전출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결과, 전출자의 60%가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주소만 타 지역으로 파양한 점도 계기가 됐다. 이·통장들은 다짐대회 이후 지역 거

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순천시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순천 인구의 타 지역 유출과 다른 지역의 인구 빼가기 시도를 막는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 대학, 기업체, 기관 등에도 주소 이전 등 협조를 요청하는 애환운동을 펼치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조모현 이통장연합회장은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는 게 행복한 도시가 되는 기본임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버스정류장서도 휴대폰 충전

20곳에 무료충전시설 설치

버스정류장에서도 휴대폰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순천시는 최근 버스정류장 20곳에 휴대폰 무료충전시설(사전)을 설치했다. 관공서, 시내버스와 버스정류장 등 455곳에 공공 와이파이시설을 구축한 데 이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조치다.

충전시설은 대학교와 시장 등 지역민들이 자주 오가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했고 안드로이드·아이폰 등 모든 종류의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순천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추가 설치하는 등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또 시청 인근에 설치한 인공지는 자동점멸 기능이 있는 안심빛 글도 문화의 거리 주변 달빛야행 코스를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립도서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순천시립도서관은 겨울방학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도서관을 친숙하게 생각하고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책 만드는 도서관', '신나는전래놀이', '창의키즈 만들기 세상', '리딩푸드놀이' 등 다양한 놀이 및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깊이 있는 독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독서교실'도 각 도서관별로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도슨트 체험', '직업찾기 프로젝트', '인문학강독' 프로그램과 성인들을 위한 '영화인문학 산책', '시로 여는 생태인문학' 등도 마련했다.

8개 시립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문의는 순천시 도서관운영과(061-749-6993)로 하면 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
H 010-9229-3530
062-5 3 1-3530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